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청주지방검찰청

### 충주지청

공보담당관 검사 정초롱

전화 043-841-4345/ 팩스 043-841-4603

## 보도자료

2023. 5. 26.(금)

## 제 목

**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관련  
설계 공법 변경 대가로 3억 상당 금품을 수수한  
공사감독관과 시공업체 법인 대표 등 불구속 기소**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2023. 5. 24.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(지청장 최임열)은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과정에서 철골 자재 감축 등 설계 공법 변경 대가로 3억 상당을 수수한 공사감독관과 금품을 교부한 시공업체 법인 대표 등 4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
-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,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철골 시공업체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여 공사 감리업체 및 공법업체 관계자, 공사업체 경리 직원 등 관계자 조사 결과,
  - 철골 시공업체 대표 등이 공사감독관·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철골 자재 물량 축소 등 설계변경을 청탁하자,
  - 공사감독관, 현장소장이 설계변경 대가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,
  - 이에 철골 시공업체 대표 등이 합계 3억 2,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공사감독관과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나누어 전달한 사실을 밝힘
- 본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아울렛 신축 과정에서 ‘공사업체와 공사감독 책임자의 부정한 유착관계’를 밝혀 엄단한 사안으로,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음

## 1 피고인

- A○○(55세, 발주사 공사감독관)
- B○○(53세, 시공사 현장소장)
- C○○(57세, 철골공사업체 대표이사)

※ 공범인 D○○(57세, 철골공사업체 사내이사)는 '23. 2. 28. 불구속 기소

## 2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는 C○○, D○○로부터 '△△공법으로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'는 청탁을 받고 '17. 9. ~ '18. 3.경 현금 합계 3억 원을 취득하여 [배임수재]
- B○○는 C○○, D○○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'17. 11.경 현금 2,000만 원을 취득하고, A○○에 대한 자금 전달 등 역할을 하여 [배임수재 등]
- C○○는 D○○와 공모하여,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○○에게 현금 합계 3억 원을 공여하여 [배임증재]

※ C○○, D○○의 B○○에 대한 2,000만 원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

## 3 수사 경과

- '22. 11.~12. 업체관계자 조사, 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, 피의자들 입건
- '23. 1.~2. 28. 협력업체 등 계좌추적, 공사 관계서류 확보, FIU회신자료 분석, 공사관계자 조사, D○○ 불구속 기소
- '23. 3.~5. 피고인들 재산변동 분석, 세무자료 등 확보, 관계자 조사
- '23. 5. 24. A○○, B○○, C○○ 각 불구속 기소 및 추징보전 청구

## 4

###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공소시효 경과로 암장될 수 있었던 범행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세무자료와 함께 '철골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'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, 20곳이 넘는 철골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함
  - 그 결과,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아울렛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철골 등 자재 물량이 감축되고,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에서 거액의 현금이 조성된 정황 등을 포착함
- 이에 해당 아울렛 철골공사 관련 감리업체 및 공법업체 관계자, 공사업체 경리직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결과,
  - 철골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철골 등 자재 물량을 줄여 공사비 절감액을 수익하고자 공사감독관,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철골 등 자재 물량 축소 등 설계변경을 청탁하고,
  -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사감독관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청탁 대가로 자재감축에 따른 예상 수익 일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,
  - 이에, 철골공사업체에서 3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교부하는 등 공사업자와 공사감독자 사이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밝힘
- 본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아울렛 공사의 관리·감독을 총괄하는 공사감독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,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와 함께 관련 범죄수익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음 ☑